

클린스만호, 오늘 우루과이 제물로 첫 승 도전

월드컵 이후 4개월만 리턴 매치 '프리플' 손흥민, 2연속 골 기대 김진수 공백·수비 안정화 과제

클린스만호가 데뷔전 아쉬운 무승부를 뒤로 하고 우루과이를 제물로 다시 첫 승 도전에 나선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28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우루과이와 친선 경기를 치른다.

한국은 지난 24일 콜롬비아와 경기에서 2-2로 비겼다. 전반에만 두 골을 넣으며 앞서 나갔으나 후반 초반 연속 실점을 내주며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순간적으로 흐트러진 집중력이 원인이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경기 무승부에 개의치 않고 있다. 아시안컵 우승을 향한 여정이 이제 막 출발선에 섰다는 것.

한국은 콜롬비아와 경기에서 비록 무승부를 거뒀지만 클린스만 감독만의 색채를 드러냈다. '캡틴' 손흥민을 4-2-3-1 포메이션의 2선 측면이 아닌 중앙에 위치시켰고, 프리플을 부여해 그라운드를 휘젓게 했다.

손흥민은 전반 10분과 45+1분, 멀티골로 맹활약했다.

클린스만 감독 역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활약이 기쁘다"며 "중원이든



한국 축구 대표팀 손흥민 등 선수들이 지난 26일 경기 파주시 축구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NFC)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대표팀은 28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우루과이와 평가전에 나선다. 뉴스사

측면이든 공격에서 로테이션으로 다양한 역할을 부여할 것이고 프리플 역할로 유용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수비 안정화는 과제로 꼽힌다. 김민재와 김영권의 집중력이 중요하고 지난 경기에서 부상을 입은 김진수의 공백도 메꿔야 한다. 김진수는 정밀검사 결과 요

추 2번 좌측 횡돌기 골절이 확인돼 설영우가 대체 발탁됐다.

김민재는 27일 파주NFC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콜롬비아전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후반에 집중력을 잃어 두 골을 내준 점에 대해 선수들과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루과이전은 어렵겠지만 언제든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며 "우루과이를 포함한 남미 팀들은 거칠고 강하게 부딪히는 축구를 해 우리가 맞받아 칠 각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우루과이와 FIFA 랭킹과 상대 전적에서 절대 열세다. 한국은 랭킹 25위

로 16위인 우루과이에 뒤져 있고 상대 전적 역시 1승 2무 6패로 지난 2018년 10월 서울에서 치른 친선경기(2-1)가 유일한 승리다.

하지만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매운 맛을 선보였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우루과이와 0-0으로 비겼다. 우루과이는 이 맞대결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조별리그 결과 1승 1무 1패로 16강 탈락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

직후 우루과이는 디에고 알론소 감독과 결별해 감독이 없는 상태다. 이번 친선경기는 마르셀로 브롤리 U-20 대표팀 감독 대행 체제로 치러진다.

루이스 수아레스와 디에고 고딘, 에딘손 카바니 등 베테랑들과 다르윈 누녜스, 로날도 아라우호 등 대표팀 합류가 불발돼 전력은 약화됐다.

클린스만 감독은 김민재와 함께 회견에 참석해 "지난 콜롬비아전에서 좋은 경기를 펼쳤지만 실수로 인해 두 번의 실점을 했다"며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실수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보완해야 한다"고 되짚었다.

이어 "우루과이도 콜롬비아와 마찬가지로 남미 강호지만 우리도 강하다"며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보완하며 나아가겠다. 조직력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KIA, 친환경 응원 도구 '페이퍼 스틱스' 출시

공식 오프라인 매장서 판매

KIA타이거즈가 친환경 응원 도구 '페이퍼 스틱스(사진)'를 선보인다.

27일 KIA에 따르면 '페이퍼 스틱스'를 막대풍선과 플라스틱 응원봉을 대체할 응원 도구로 출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확대 시행됨에 따른 것.

페이퍼 스틱스는 출시 과정에서 광주 지역 디자인 전공 대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기존 응원 도구 특징을 유지했다.

친환경 소재인 종이로 제작했으며 포장지 역시 생분해 용지가 사용됐다.

KIA 관계자는 "향후에도 친환경 소재



를 활용한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페이퍼 스틱스는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내 공식 오프라인 매장에서 1세트(2개) 6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한규빈 기자

광주 보치아 강선희, 충남도지사배 우승

나미숙 BC4 3위

광주보치아연맹 소속 강선희(BC3/스포트등급)가 제5회 충남도지사배 전국보치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강선희는 지난 26일 충남 태안에서 끝난 이번 대회 BC3 결승에서 숙명의 라이벌인 충남도청실업팀 최예진을 4-3으로 꺾고 1위를 차지했다.

2023년 국가대표로 선발된 강선희는 오는 10월 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과 12월 아시아-오세아니아 보치아선수권대회 국가대표로 참가해 메달 획득에 도전할 예정이다.

광주보치아연맹 나미숙은 BC4에서 3위를 차지했다.



강선희(왼쪽)와 나미숙 선수.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나미숙은 준결승에서 경남의 박성자에 3-5로 아쉽게 패했지만 3-4위 순위결정전에서 경기 이명순을 8-0로 꺾고 보치아 입문 이후 처음으로 3위권 내 입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최동한 기자

'영암 출신' 유해란, LPGA 데뷔전 '톱10' 진입

공동7위... 신인 돌풍 예고 셀린 부티에, 연장전 우승

'영암 금정' 출신 프로골퍼 유해란(22·사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데뷔전에서 톱10에 진입하며 신인 돌풍을 예고했다. 3라운드에서 공동2위까지 올랐지만 최종합계 16언더파 272타로 공동 7위에 이름을 올렸다.

유해란은 27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골드캐니언 슈퍼스티션마운틴 골프 앤드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버디 2개와 보기 1개를 묶어 1언더파 71타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LPGA 켈리파잉 시리즈를 1위로 통과한 유해란은 LPGA투어 첫 무대에서 톱10에 진입하며 한국 여자골퍼의 신인왕 계보를 이을 것으로 기대케 했다.

1라운드에서 2언더파로 48위를 기록했던 유해란은 2라운드에서 버디 5개를 낚

으며 23위로 순위를 끌어 올렸다. 3라운드에선 이글 1개, 버디 6개로 8언더파를 기록하며 공동 2위로 우승 경쟁까지 펼쳤다.

하지만 마지막 라운드에서 좀처럼 차이를 좁이지 못했다. 1번 홀에서 파를 지키고 2번 홀(이상 파4)에서 버디를 챙기며 좋은 출발을 보였다. 13번 홀(파5)까지 파를 거듭한 유해란은 14번 홀(파3)에서 버디를 추가했다. 하지만 15번 홀(파4) 보기가 아쉬웠다. 아이언 샷이 흔들리며 버디 기회를 잡지 못했다.

유해란이 LPGA투어 데뷔전서 경쟁력을 과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장타였다. 1~4라운드 평균 드라이브샷 거리가 292야드에 달했다. 1라운드에선 300야드를 넘어 306야드까지 찍었다. 3라운드에서도 299야드, 4라운드에서 298야드를 기록하는 등 장타에서 발군의 기량을 뽐냈다.

정교함도 빛났다. 2~4라운드에서는 연이어 퍼트수 27개를

기록했고, 대회 평균 그린 적중률도 77.78%(56/72)에 달했다. 2라운드와 3라운드에서는 보기 없는 라운드를 치르면서 순위를 대폭 끌어올려 우승 경쟁도 했다.

그는 경기 후 "최대한 즐기려고 했는데 스코어가 안좋아서 아쉬웠다. 하지만 첫 데뷔전에 챔피언조에서 마지막 날 뛰었던 것만으로도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LPGA투어를 뛰면서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선수들은 이번 대회에서 유해란을 포함한 3명이 톱10에 들었다. 안나린(27)은 최종 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5개로 타수를 줄여 최종합계 18언더파 270타로 4위를 차지했다. 지난 5일 HSBC 월드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올랐던 고진영(28)은 마지막 날 4타를 줄여 최종합계 17언더파 271타로 공동 5위에 자리했다.

셀린 부티에(프랑스)는 연장 접전 끝에 조지아 홀(잉글랜드)을 제압하고 LPGA투어 통산 3번째 우승을 거머쥐었다.

최동한 기자

전남드래곤즈-FC목포, 내일 FA컵 2R서 '전남 데비'

프로축구 K리그2 전남드래곤즈와 세미프로 K3리그 FC목포가 '전남 데비'로 격돌한다.

전남드래곤즈와 FC목포는 29일 오후 7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2023 하나원큐 FA컵' 2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전남은 FA컵 4회 우승에 빛나는 만큼 3라운드 진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2부리그 팀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최근 분위기는 다소 침체돼 반전이 절실하다. 전남은 개막 후 FC안양(0-1), 경남FC(0-5)에 2연패 후 서울이랜드FC에 1-0 승리했으나 김포에 0-2 패하며 상승세를 타지 못했다.

이장관 감독은 "전남은 FA컵에서 4회

나 우승한 강팀"이라며 "이번 FA컵 2라운드 경기를 통해 팀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목포는 '칼래의 기적'을 꿈꾸고 있다. 지난 2017년 준결승, 2018년 8강 진출 등 FA컵에서 목포는 화제의 팀이었다. 최근 분위기 역시 최고점을 달리고 있다. 지난 5일 FC충주(2-1)와의 FA컵 1라운드를 시작으로 양주시민축구단(4-2), 양평FC(2-0)와의 리그 경기까지 3연승으로 올해 전승을 기록했다.

한규빈 기자